

옛 음반에 담긴 국악의 아름다움과 가치

‘춘향전’은 1920-30년대 창극을 매개로 대중들의 인기를 끌었다. 당시 협률사, 광무대 등과 같은 극장이 들어서면서 공연이 일반화됐고, 이와 맞물려 음반사 전업이 발매됐다. 창극식 음반은 일축조선소리반(1926년), 시에론과 콜롬비아(1934년), 빅터와 오케 ‘춘향전’ (1937년) 등이 있다.

옛 음반에 담긴 국악을 들어보고 당대의 감흥과 미학을 느껴볼 수 있는 흥미로운 전시가 마련돼 눈길을 끈다. 특히 전시에서는 이화중선, 임방울, 김소희 등 당대 명창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복각한 디지털 음원 150여 점도 볼 수 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 전당장 이강현)과 국립국악원(원장 김영운)이 마련한 ‘최고의 소리반’ 4월 7일까지 문화창조원복합전시관 유성기 음반·사진·신문기사 등 전시 오늘 개막식...매주 수요일 연계공연

‘우리의 옛 소리를 담은 유성기 음반’을 주제로 열리는 전시는 100여 점 유성기 음반을 비롯해 가사지, 사진, 신문기사 등 자료를 접할 수 있다. 국립국악원은 가장 오래된 공중음악 음반인 ‘조선악약’과 ‘악약정수’를 복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운 국악원 원장은 “두 공간에서 관객은 디지털로 복각된 유성기 음반 음원 150여 점과 영상 등을 감상할 수 있다”며 “LP를 다뤄보는 등 아날로그 음향기기 체험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전시실은 유성기 음반 등을 볼 수 있는 공간, 복

ACC·국립국악원 ‘최고의 소리반’

4월 7일까지 문화창조원복합전시관

유성기 음반·사진·신문기사 등 전시

오늘 개막식...매주 수요일 연계공연

각된 음원과 LP를 체험할 수 있는 감상실로 이루어져 있다.

1부 ‘최초의 소리기록’에서는 소리를 기록하고 재생했던 유성기와 음반의 역사를 가늠한다.

눈에 띄는 것은 ‘가방식 원통형 실린더 유성기’, ‘평원반 유성기’, 에디슨의 ‘가방식 원통형 실린더 유성기’는 전화 수화기의 원리를 응용해 필립판 가운데 바늘을 달아 은박지에 진동을 새겼다. 1888년 베를리니는 원반을 매체로 이용하는 Gramophone를 개발했는데 제작 공정은 까다롭지만 재질이 단단해 평원반 제작방식의 유성기가 대중화됐다.

조선 공중음악인 ‘조선악약’이 기록된 자료들을 볼 수 있는 공간도 있다. 2부 ‘최고의 가치’에서는 일제강점기를 거쳐 오늘에까지 이어진 우리 공중음악의 가치를 조명한다.



ACC가 국립국악원과 함께 4월 7일까지 ‘최고의 소리반’을 주제로 전시를 연다. 원통형 왁스 실린더(왼쪽), 가방식 원통형 실린더. <ACC 제공>

특히 유성기 음반으로 전하는 이왕직악부의 음악을 만난다. 1928년 녹음한 ‘조선악약’은 우리나라 최초 전기 녹음 방식을 사용했으며 마이크로폰으로 녹음한 공중음악 첫 번째 음반이다. 1943년에는 ‘조선악약’ 수록곡 중 12곡을 선별해 6매를 재발매했다.

3부 ‘최고의 인기’에서는 시대의 고전 ‘춘향전’을 모티브로 한 자료들이 주인공이다. 시에론, 콜롬비아, 빅터, 오케 등 유명 음반회사에서 발매한 음반을 비롯해 변천 과정을 정리했다.

‘최고의 스타 명창’ 자료를 볼 수 있는 4부에서는 송만갑, 이화중선, 임방울, 박목주 등 당대 명창들을 조명했다. 당시 유성기 음반은 경성방송국(1927년)과 더불어 가장 인기있는 대중매체였는데 이와 맞물려 명창은 공연뿐 아니라 음반 취입, 방송 출연을 통해 인기를 구가했다.

마지막으로 5부는 호남의 국장을 오마주한 자료들로 채워진다. ‘국창 임방울의 음반’에서는 당시 음반 판매 20만장을 기록했던 임방울의 소리를 주제로 탄생 120주년을 기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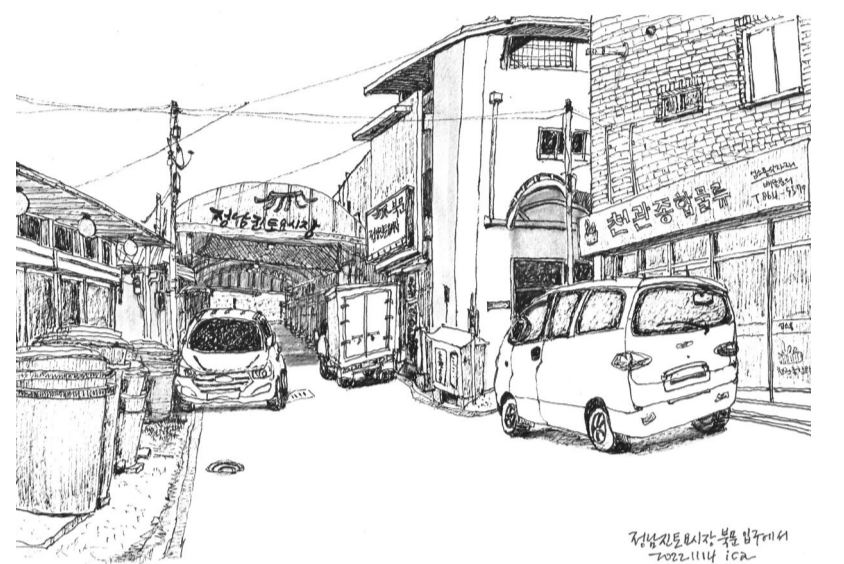
전시와 연계한 공연(매주 수요일 저녁 7시)도 펼쳐진다. 명창 주소연, 김명남, 하선영, 허애선의 ‘심청가’, ‘흥보가’, ‘춘향가’를 전시실 무대에서 들려준다. 무료전시이며 자세한 내용은 ACC 누리집에서 참조

ACC 이강현 전당장은 “예로부터 광주와 남도는 많은 국악인을 배출한 문화예술의 중심지로, 이번 전시가 광주에서 열린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더불어 국립국악원과 협력해 매개로 진행돼 국악 관련 다채로운 자료들을 현장에서 직접 보고 들을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성천 기자 skypark@

펜으로 살려낸 오밀조밀 기억 한 자락

‘서재은의 일일일작’ 전 8일까지 일곡갤러리

작품에서 흑백의 맛이 배어나온다. 오밀조밀하게 묘사된 풍경은 기억의 한 자락을 펼쳐놓는 듯 아늑하면서도 정이 느껴진다. ‘정남진’을 보다 말고 오래 전 방문했던 그곳 토요일의 한 장면이 뇌리에 스쳐지나가는 경험과 조우한다. 대상의 특징을 빠르게 갈무리한 스케치는 그럴듯 현장보다 더한 현장감을 선사한다.



‘정남진’

서재은의 어반스케치가 주는 맛은 깊고 고우하다. 한번 보고 또 보고 싶어지는 그림이다.

일곡도서관 내 일곡갤러리(8일까지)에서 열리는 ‘서재은의 일일일작(一日一作)’ 전시실에서는 평면(회화), 팬드로잉을 포함 약 50여 점과 20여 권의 드로잉북, 어반스케치 도구 등을 볼 수 있다. ‘일일일작’이라고 명한 것은 매일 하루 한 장씩 현장에 가서 작업을 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어반스케치는 거주하고 있는 곳이나 여행지 등 현장에서 보는 풍경이나 단상 등을 빠르게 담아내는 그림을 말한다.

이번 전시를 기획한 윤민화 광주예술공감연구소 대표는 “어반 스케치하면 연필로 그리고 펜을 입힌 다음 수채화물감을 들이는 것이 일반적인데 서재은은 연필이나 펜만을 사용한다는 것이 특징”이라며 “수묵담채화처럼 심플하고 간결한 맛이

느껴지며, 흑백의 음영이 주는 울동감은 특유의 분위기를 환기한다”고 말했다.

서재은은 20여 년간 직장생활을 한 뒤 작품 활동을 시작했다. 독학으로 그림공부를 했다. 어반스케치를 시작한 지는 2년 정도 됐는데, 이번 전시를 위해 하루도 거르지 않고 펜을 들었다. 그동안 광주를 비롯해 서울, 담양, 장성 등 여러 곳을 다녔고, 각각의 지역이 주는 감성이 오롯이 화폭에 투영됐다.

서재은은 “현장을 다니다 보면 예기치 않은 상황이 많이 있다. 그림을 그리다보면 옆에 왜 얘기를 건네는 이도 있고, 갑자기 비가 쏟아져 난감할 때도 있다”며 “모든 것은 스토리가 돼 의미있는 작업으로 연결된다는 데 현장 작업의 특징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빅터 ‘춘향전’

부처가 되기 위한 과정... ‘싯다르타’의 사유와 깨달음

(사)엠에스엠시 뮤지컬 공연

8~10일 광주예술의전당 대극장

두 가지 예언을 받으며 태어난 싯다르타는 열두 살이 되던 해 카필라국 태자로 즉위한다. 그는 예언에 따라 이상적인 제왕인 전륜성왕이 되는 고행 길에 드는데, 삶 자체가 고통인 천민들 삶을 보고 충격을 받는다. 싯다르타는 사회에 만연한 불평등과 카스트 제도의 불합리를 바꾸기 위해 죽음과 함께 ‘중도’의 길을 찾는다.

(주)엠에스엠시가 뮤지컬 ‘싯다르타’를 오는 8~10일 광주예술의전당 대극장에서 선보인다. 금요일 오후 3시·7시 30분, 토요일 2시·6시, 일요일 2시 진행.

공연은 2019년 초연 이후 각색을 더해왔으며 적정과 열반의 경지에 두 부처를 소재 삼았다. 2600년 전 인도 아대륙에서 왕자로 태어나 전륜성왕의 길을 버리고, 새로운 구도의 길에서 깨달음을 얻은 부다(Buddha)의 서사를 조경화한다. 부다는 부처님, 석가, 세존, 석존 등으로 불려온 불교의 창시자 고타마 싯다르타의 아명이다.

이번 작품은 싯다르타가 19세에 신부를 맞이한 날, 29세 출가를 결심한 날, 35세 깨달음을 얻은 날 등 3개 에피소드를 중심으로 풀어 나간다. 김



뮤지컬 ‘싯다르타’ 출연진들이 연습하는 장면.

<(주)엠에스엠시 제공>

중석 연출가는 “부처님 이야기를 지루하지 않게 전달하기 위해 그의 삶에 큰 변곡점이 됐던 3개의 흥미로운 사건을 중심으로 서사를 구성했다”고 전했다.

서정적인 멜로디가 인상적인 ‘바람은 어디서’, 록 음악의 강렬함이 살아있는 ‘떠난다’ 등이 귀를 사로잡는다. 2막에서 싯다르타와 마라 파피야스의 강렬한 대결 구도, 과거 인도 전통을 살린 의상도 관람 포인트다.

싯다르타 역을 맡은 배우 이태이는 “부처님이 되는 과정을 그린 작품 속에서 싯다르타 사유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그 안에서 어떠한 깨달음을 얻어가는지 집중해서 준비하고 있다”며 “이번 광주 공연 이후 세종시, 서울 등 순회공연과 하반기 예정된 해외공연에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VIP 12만 원, S석 8만 원, A석 6만 원 등. 인터파크 예매.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극단 진달래피네가 작품 ‘표해’를 연습하는 장면.

<광주연극제 제공>

‘제38회 광주연극제’ 막 오른다

한국연극협회 광주시지회, 9일까지 빛고을시민문화관

(사)한국연극협회 광주광역시지회가 ‘제38회 광주연극제’를 5-9일 오후 7시 30분 빛고을시민문화관 대극장에서 연다.

이번 축제는 지역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다섯 극단의 작품을 볼 수 있는 자리로 ‘제42회 대한민국 연극제 예산대회’를 겸해 진행된다.

5일에는 극단 아트커뮤니티의 ‘돌아오는 길’이 예정돼 있다. 일제강점기가 끝나가는 무렵 징용 노동자 115구 유해가 70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오는 날, 황길자 씨는 친구들을 데려와달라고 방송작가에게 호소한다. 일본과의 합의, 우리 정부와의 갈등을 빚지만 점차 서로를 이해하게 되는 내용이다. 연출은 원광연이 맡았다.

6일 무대에 오르는 작품은 극단 까치들의 ‘이장’. 바람 난 부인과 이혼하며 전재산을 날리고 엄마에게 얹혀 사는 셋째, 오토바이 배달을 하며 돈

잘 버는 부인에게 꼼짝없이 붙들려 사는 둘째, 승무원으로 집의 생활비를 대고 있지만 곧 해외로 떠날 판 하는 셋째까지, 세 명의 자식들과 엄마가 사는 집은 바람 잘 날 없다. 어느날 삼촌이 찾아와 “아버지 무덤을 이장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서 가족은 또다른 갈등에 휩싸이는데...

이밖에도 7일에는 극단 진달래피네의 ‘표해’, 8일 극단 시민의 ‘갈매기’가 이어진다. 9일에는 연극문화공동체 DIC의 작품 ‘하녀들’이 연극제 대미를 장식한다. 연출에 정문희.

연극협회 관계자는 “배우들이 피땀을 흘리며 연습한 공연은 우리네 삶, 미래, 꿈 등 다양한 주제가 담겨 있다”며 “연극이 주는 감동과 카타르시스를 통해 힐링의 시간을 가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예매 문의는 광주연극협회.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지역서점은 도서 15% 이상 할인”

문체부, 규제혁신 추진...연내 출판문화산업진흥법 개정 계획

정부가 도서정가제 적용에서 웹툰과 웹소설을 제외하고, 지역서점에 한해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4일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규제혁신 추진회의를 주재하고 문화·예술·스포츠·관광 산업에서 이 같은 내용의 규제 혁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문체부 장관이 규제혁신 회의에 주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신산업 분야에서는 도서정가제 적용 대상에서

웹툰과 웹소설을 제외하는 내용으로 연내 출판문화산업진흥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도서정가제는 간행물 정가의 15% 이내에서만 할인해 판매하도록 하는 제도다. 도서정가제 적용에서 제외되면 콘텐츠 특성에 맞는 다양한 가격 정책이 가능해진다.

미술품 수출 규제도 올해 안에 문화유산법 시행령을 개정해 완화할 방침이다. 제작된 지 50년 이상 지난 미술품은 해외 수출이 원칙적으로 금지됐

으나, 앞으로 1946년 이후 제작된 미술품은 별도 허가 없이 수출할 수 있도록 한다.

또 콘텐츠 기업의 자금조달을 지원하고자 기획과 개발, 유통 등 전 단계에 보증 공급이 가능하도록 완성 보증 제도를 확대 개편한다.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세액공제 확대 등을 조세 당국과 계속 협의할 예정이다.

저작권 등록 수수료 부담도 낮춘다. 웹툰·웹소설 등 일부부씩 순차적으로 공표하는 저작물은 최초 저작권 등록 후 두 번째 추가 등록부터는 수수료를 2만·3만원에서 1만원으로 인하한다. 등록 수수료 면제 대상도 경제적 약자뿐만 아니라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으로 넓힌다. /연합뉴스